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과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인식*

김 태 숙**

대구대학교 박사과정 학생

권 순 우***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요 약 》

본 연구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초등학생 청각장애아동의 어머니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어머니의 양육 경험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이며,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가를 현상학적 분석을 통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이 청각장애아동의 교육과 재활에는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대한 인식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청각장애아동을 양육했던 경험의 과정을 고통의 강도, 아동의 청각장애는 내 탓, 어머니의 장애수용의 3단계 과정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불굴의 도전 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다시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긍정적 양육 태도가 되는 순환적 과정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긍정적 양육 경험을 토대로 청각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인식의 과정을 구화교육,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의 2단계 과정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실행했던 양육 방법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함께 자기주도적인 교육관을 새롭게 실현하여 청각장애아동에게 다양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경험과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통해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진단, 수술, 재활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청각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한 어머니의 뚜렷한 교육관 정립, 정서적 지원과 정보의 교류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 청각장애, 인공와우, 양육경험

* 이 논문은 대구대학교 2018년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 교신저자 (ksww1114@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출생을 앞두고 태어날 자녀에 대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여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소망을 갖는다. 그러나 뜻밖에 장애자녀의 출생은 부모의 이러한 기대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상실감, 분노, 충격, 부인, 슬픔, 침체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케 한다(박정미, 2011).

마치 자녀의 장애가 어머니의 잘못된 것처럼 자책하거나 절망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자녀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어머니로서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장애아동의 양육에 쏟는 과정에서 죄책감과 함께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빠지기도 한다(전향진, 오명화, 김정자, 2014).

감각장애 중 특히 청각의 손상은 인간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언어생활 중에서 말소리에 의한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권순우, 김병하, 김남진, 2003). 또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상호 간에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사랑과 증오 등의 감정을 표현하고 한 개인이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완성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은 말을 알아듣는 청각기관이 온전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도홍, 2014). 이러한 청각은 언어발달 시기의 아동들에게 청력을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언어자극을 수용하고 자신이 산출한 발화가 적절한지 스스로 감독해가며 언어능력을 발달시켜 간다(최윤희, 윤미선, 2007). 하지만 청각장애아동들은 제한적인 청력의 문제로 인하여 언어자극 및 자신의 발화에 대한 피드백을 온전하게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김영태, 이윤경, 2000).

청각장애를 진단받고 치료를 결심하기까지 그리고 치료를 위해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 어머니의 역할이다. 청각장애자녀의 양육이나 재활치료 그리고 가족 갈등과 같은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은 대부분 어머니의 몫으로 분담된다. 대부분 아버지는 주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지만 청각장애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교육·치료적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바가 적다.

한편, 부모가 자녀에게 거는 기대, 행동 등은 자녀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부모는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 기준을 통하여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을 결정하게 되고, 그에 적합한 부모 역할을 결정하게 되며 다시 이들은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박은희, 2003). 부모의 기대는 자녀의 실제적인 발달적 변화와

특성에 대한 지각이기보다는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적 특성과 과정에 대한 신념 또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란 부모가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는 발달적 특성과 과정을 자녀가 성취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 행동이나 부모 역할은 자녀 양육에 있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자녀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와 관련이 있다. 이는 결국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고와 가치, 정서를 포함할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부모의 양육 행동과 부모의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영역과 수준에 따라 자녀에게 보이는 부모 역할이 달라지며 더 나아가 이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민정, 2012).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 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는 지식 중심의 입시교육, 조기 교육의 열풍 및 인성 교육의 부재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특히 성공과 결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쟁 사회에서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머니들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기도 한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기대가 자녀들의 학업 성취, 문제 해결 능력, 유아들의 학업능력에 대한 신념 등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어머니의 지나친 기대나 왜곡된 기대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자녀에 대한 적절한 성취기대는 자녀의 성취 결과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승미, 김희진, 2005). 어머니의 신념은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제공하는 방법, 자료의 선택, 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 자녀의 성취에 대한 기대, 상호작용의 질, 양육 활동의 내용과 시기를 결정함으로써 유아가 경험하게 될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Patton, 2002; 한유미, 권희경, 2006에서 재인용).

최근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가족 모두가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줄 수 있어서 어머니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양육은 어머니의 몫으로 분담되고 있고, 더욱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는 청인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경제적 비용과 육체적인 고통처럼 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에서부터 부정, 분노, 우울 등과 같은 복합적인 정서 문제, 친인척과의 소통 부재와 같은 극도의 심리적 고립을 경험한다(정세영, 김자경, 2015).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청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청각장애부모가 당면한 자녀 양육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민영, 성정경, 2015; 모상근, 2015; 오인혜, 정은희, 2011; 오혜정, 2017; 장유리, 2015). 하지만 대부분 질문지를 이용한 양적 연구로써

청각장애아동 부모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양육 경험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도 부모의 양육 부담 혹은 양육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현주, 2014; 김호연, 강창욱, 2011; 안수영, 2015; 안윤정, 현진희, 2014; 오혜정, 2017; 전향진, 오명화, 김정자, 2014; 정승희, 최성규, 2011; 정세영, 김자경, 2015; 정현주, 김성수).

이에 비하여 청각장애아동 어머니의 관점에서 체험을 통한 양육 경험의 본질과 청각장애아동에게 거는 다양한 기대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한 질적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각장애아동 어머니의 다양한 양육 경험의 의미와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향후 청각장애아동의 교육과 재활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아동 어머니의 관점에서 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본질을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청각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통해 자녀에게 바라는 기대가 무엇인가를 어머니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향후 청각장애아동의 교육 및 재활에 의미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경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둘째,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과 교육에 대한 인식에 관한 현상과 의미를 탐구하고자 질적 연구 방법의 한 영역인 현상학적 연구를 선택하였다. 연구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육 경험과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의미 있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이러한 다양한 현상을 통해서 청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과 교육에 대한 인식을 깊은 본질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과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본질을 탐색하여 양육 경험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적절성과 충분성의 원리(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에 따랐다. 연구 참여자는 H시와 G시에서 청각장애아동의 양육 및 교육과 재활에 적극적이면서 청각장애아동 어머니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고 있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초등학교 청각장애아동의 어머니 6명을 선정하였다.

H시에 거주하는 연구 참여자 3명(A, B, C)중 A는 G시에 거주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 D와 친분이 있어서 소개를 받은 어머니이다. 연구 참여자 D와는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후 재활을 위한 OO학교에서 만나 현재까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나머지 2명(B, C)은 연구 참여자 A로부터 소개를 받은 어머니들로서 지금까지 꾸준히 언어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임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각장애아동의 어머니들로 구성되었다.

G시에 거주하는 3명(D, E, F)의 연구 참여자 중 2명(D, E)은 OO아동·청소년 발달센터에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의 어머니이다. 연구 참여자 D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조력자이고, 다른 1명(E)은 OO아동·청소년발달센터로부터 아동의 청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검사를 권유받았던 아동의 어머니이다. 나머지 1명(F)은 연구 참여자 D로부터 소개받은 어머니로서 연구 참여자 D와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인 교류를 나누고 있는 어머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 경험에 대한 현상을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6명을 눈덩이 표집선정(snowball sampling)방법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한 핵심 연구 참여자 D를 선정하고 D로부터 연구의 주제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다른 연구 참여자들을 소개받는 방법이다. 최종 선정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청각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청각장애자녀의 교육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양육 경험과 교육에 대한 인식은 청각장애아동의 교육과 재활에는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와 청각장애자녀에 대한 정보는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구 분	연구 참여자 A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 F
연 령	44세	43세	40세	38세	38세	37세
학 령	대졸	대졸	대졸	고졸	대졸	대졸
직 업	개인 사업	보육 교사	영양사	회사원	전업 주부	방과 후 교사

<표 2> 연구 참여자의 청각장애자녀 특성

구 분	연구 참여자 A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 F			
자녀 연령 및 성별	9;4 (여)	12;2 (남)	9;4 (남)	9;0 (남)	7;10 (여)	7;8 (남)			
청력 손실 시기	선천성	선천성	원인 불명	선천성	원인 불명	원인 불명			
인공시술시기	18개월	좌: 8세 우: 5세	45개월	12개월	6세	16개월			
청각 장애 아동 실태	청력손실 정도	좌	105dB	90dB	90dB	100dB	70dB	95dB	
		우	103dB	90dB	100dB	100dB	80dB	95dB	
	보장구 유형	좌	인공 와우	인공 와우	보청기	-	보청기	-	
		우	인공 와우	인공 와우	인공 와우	인공 와우	인공 와우	인공 와우	
	교정 청력	좌	25dB	20dB	70dB	100dB	30dB	95dB	
		우	30dB	30dB	20dB	30dB	20dB	20dB	
	어휘력 검사 결과	수용	등가 연령	11;0	16세 이상	9;0-9;5	11;0	7;0-7;5	8;6-8;11
			백분위	50-60%ile	100%ile 이상	10%ile 미만	60-70%ile	10%ile 미만	50%ile
		표현	등가 연령	10;0	15세 이상	9;0-9;5	11;0	7;0-7;5	8;0-8;5
			백분위	60%ile	100%ile 이상	10-20%ile	70%ile	10-20%ile	50%ile

연구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2. 연구 절차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아동의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었던 심도 깊은 경험과 자녀의 교육 인식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솔직하고 깊은 묘사가 가능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는 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본질과 청각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반 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오혜정, 2017)를 분석하여 1차로 작성한 후 해당 분야 특수교육 전문가와 협의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후에 청각장애아동 어머니 1명을 대상으로 예비 면담을 통하여 관련된 주제가 답변이 다소 애매하거나 의미가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특수교육 전문가와 함께 문항을 삭제하거나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반 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를 미리 연구 참여자에게 보내 면담 전에 질문에 대한 내용을 혼자 생각할 하게 한 후 비구조적인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

또한, 본 연구에 관한 배경과 목적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연구에 대해 동의를 한 6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5월 30일 사이에 약 6개월 간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개별 심층면담은 G시에 거주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일 경우 연구 참여자의 자녀가 OO아동·청소년 발달센터에서 언어치료를 받는 동안 1급 언어재활사인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센터 내 조용한 부모 상담실에서 1회기 60분 정도의 심층면담이 이루어졌고, OO아동·청소년발달센터에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연구 참여자는 약속 시간을 정해서 센터의 부모 상담실에서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

H시에 거주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을 학교에 등교 시킨 후 오전 시간에 주로 심층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심층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집 또는 연구 참여자의 집과 거리가 가까우면서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은 일주일에 1회씩 60분 내·외로 진행되었으며, 면담 횟수는 한 사례 당 총 2-3회 정도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자녀의 언어 치료를 위해 센터 방문 시 수시로 면담을 통해 보충하거나 그 외 연구 참여자들은 따로 약속을 정하여 보충하였다.

2) 자료 분석

모든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SONY IC RECORDER ICD - UX512F 녹음기로 동시 녹음하였고, 녹음된 자료는 가능한 면담이 이루어진 날 일과 후에 전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면담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안에 모두 전사하였다. 특히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표정이나 감정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캐논 PC 1158로 비디오 녹화도 병행하였으며 필드 노트에 그때의 상황을 요약 정리하여 그날 일과가 끝난 후 바로 전사하였다. 또한, 면담내용을 전사할 때 의사전달이 불확실한 부분에 관해서는 연구 참여자와 개별적인 연락을 통하여 내용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전사가 모두 완료되었을 때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전사된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내용의 정확성을 다시 한 번 더 검증받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연구 참여자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이는 질적 연구의 접근이 다른 방법들이 간과하기 쉬운 행위의 구체성, 현실성, 상호성, 관계성을 중시함으로써 행위의 객관적인 이해가 가능(권순우, 2005a)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자료의 분석은 연속적 비교법의 단계에 따라 부호화하고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Bogden, Biklen, 1982; 오혜정, 2017에서 재인용). 면담 자료의 분석을 위해 먼저 연구 참여자의 면담 내용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연구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기록하였다. 그런 다음에 기록된 내용에서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중요한 단어와 문장을 찾아 별도의 표시를 하면서 관련 있는 절과 문장들로 코딩하고, 코드들 간의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내용을 범주화하고 주제를 도출하였다(신경림 외, 2004).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1명의 전사본 1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코딩을 실시하면서 부호집을 작성하였다. 나머지 전사본들도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때 원자료를 반복하여 검토한 후에 분리할 수 있는 코드들은 분리하거나 통합이 가능한 코드들은 통합하였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코드는 추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부호집을 개정해 나갔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부호집은 각 코드 및 범주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하위주제를 결정하였다.

3. 연구의 정당성 확보 및 윤리적 고려

1) 연구의 정당성 확보

본 연구와 같은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검증의 중요함을 고려할 때 검증의 의의들을 수립하는 절차들과 관련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김향식, 2009). 즉, 질적 연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연구자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느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검증과 관련하여 연구 절차에 따른 투명성을 얻을 수 있는 절차들을 김향식(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첫째, 풍부하고 상세한 기술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은 연구 결과의 전사성(transferability)에 관한 것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확인을 거쳤다. 이러한 점은 연구 결과 해석의 신빙성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관점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며, 연구 참여자를 통한 확인과 현상에 대한 끊임없는 지향성 때문이다.

셋째, 전문가 검토를 하였다. 연구 과정에 대해 외부의 점검을 받기 위해 해당 분야 특수교육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실에 충실한 연구 과정과 결과를 담보하려고 하였다.

2) 연구의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에서 연구 과정에 대한 윤리적 고려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며 진행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많은 대화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고통의 순간을 떠올리게 되기도 하고, 숨기고 싶었던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수 있게 되는 등 예상하지 못했던 윤리적 사고와 감정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참여자의 경험 안에는 정서적이거나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측면들이 내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6명과 개별 심층면담을 하기 전 연구 참여자 전원에게 윤리적 준거에 따라 연구자의 소개와 연구 목적과 연구 절차에 대한 소개, 연구 참여의 자발성 및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보장, 비밀보장, 연구 참여를 통해 따르는 혜택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과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인식에 관한 본질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밝혀내는 것이다.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과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본질과 의미구조에 대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청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과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본질과 의미구조

본질 주제	의미 구조	범 주	하위 범주
불굴의 도전 정신	청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대한 인식	고통의 강도	고통, 부인, 눈물, 충격, 죄책감, 절망, 학대, 흑사, 청천벽력, 현실, 꿈, 영화, 억울함, 소용없음
		아동의 청각장애는 내 탓	숨을 못 쉬, 모두 내 탓, 나는 죄인, 나 때문에 장애가 됨, 늦게 발견한 내 탓, 내가 대신 죄 값을 치러야 함, 용서를 구함, 마음이 찢어짐
		어머니의 장애수용	그래도 희망은 있음, 결국 진단을 받음, 많이 울었음, 검사결과는 바뀌지 않았음, 늦게 발견함, 늦은 수술, 미안한 마음, 최선, 장애 인식
	청각장애 아동의 교육에 대한 인식	구화교육에 대한 기대	수어는 원하지 않음, 구화는 당연함, 구화의 고마움, 수어는 우리 것이 아님, 수어는 우리 세계가 아님, 최대관심은 언어발달, 수어는 처음부터 생각 안 함, 수어는 필요 없음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		소음 문제, 기기에 대한 관심, 듣기 환경 조성, 인공와우,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선입견, 교사의 인식전환, 변화에 대한 자세, 교사와의 소통, 수업준비, 수업배제, 또래관계, 친구	

1. 청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대한 인식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과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인식에서 본질 주제 불굴의 도전 정신과 관련하여 그 의미구조로 도출된 두 단계의 과정은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대한 인식, 청각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단계인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대한 인식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녀의 출산을 통해 경험했던 고통의 강도와 자녀가 청각장애로 태어난 것은 어머니인 자신의 탓이라고 인식하는 과정을 거친 후 드디어 어머니가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는 과정으로 의미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청각장애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청각장애를 진단받는 그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양육 경험의 방향성이 설정되었다.

1) 고통의 강도

연구 참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건강한 자녀의 탄생을 바라고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최대의 희망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었기 때문이다.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을 한다는 것이 보통의

사람에게도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겠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 모두는 더 할 수 없이 힘들었던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다음과 같은 표현만으로도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

사실 그때는 너무 엄청난 일이었고, 그 결과를 듣고 보청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보청기를 주문했는데 보청기 단가가 제법 있었거든요, 250만원 정도한대요, 주문해 놓고 집에 왔어요, 새벽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지요,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시어머니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40, 50도 안된 나이에 간암으로 돌아가신 너희 시아버지 일 때보다 더 큰 충격" 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서울로 가자" 고 해서 서울 아산병원으로 갔어요, (연구 참여자 D)

흔히 죽음으로 인해 배우자와 이별을 하였을 때가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들 하지만 연구 참여자 D의 경우 손자가 태어나자마자 청력에 이상이 있어서 보청기를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의 사망보다 더 큰 충격이라고 한 할머니의 말씀이야말로 청각장애아동 가족이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잘 묘사했다.

결혼 후 3년 만에 정말 어렵게 우리에게 온 소중한 아이인데 "말도 안 돼 우리 아이는 그 정도로 안 들리는 아이가 아닌데요? 그것도 한쪽이 아니라 양쪽 다 안 들린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 병원 못 믿겠어!" 그때는 나의 귀를 때어 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대신 아파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괜찮아진다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아이의 청각장애를 전혀 알지 못한 채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빨리 발견하지 못한 부모로서의 죄책감 때문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 E는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서 줄곧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자신의 일부를 떼어서라도 주고 싶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하여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연구 참여자 E의 경우는 신생아 청력검사서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청각에 이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다만 만 5세에 발음을 할 때 혀를 꼬아서 하거나 발음이 어눌하여 언어치료차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였다. 자녀의 청각장애를 늦게 발견한 어머니의 자책과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깊었는지에 대하여 잘 묘사하였다. 자녀가 둘째이면 후천적인 경우에 발견이 조금은 쉬웠겠지만 첫째 아동일 때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청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칫 발견이 늦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연구 참여자 E를 통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하늘이 노랑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제가 남편한테 이
건 아니야, 이걸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야, 영화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영화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부정도 하고 온갖
원망도 했어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힘들어요, 인공수
정 두 번 모두 실패하고 기적처럼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어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생명처럼 소중한 아이의 건강 하나만 바라고 늘 기도했어요,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 C와의 면담에서 실제로 그때의 심정을 눈물로써 이야기하는 모습
을 보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 어떤 것이었나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었
다.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원망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감정의 장면을 연
구자 앞에서 여과 없이 표출하였다. 자녀에 관한 경험은 수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충격을 쉽게 잊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었다.

고통의 강도는 연구 참여자들이 청각장애자녀를 출산하고 겪었던 고통의 과정을
40대 간암으로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일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고 표현하였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는 죄책감에 나를 학대하였다면서 그래야만 자녀로부터 용서라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을 만큼 고통의 강도는 강하였다. 그리고 아동에게 내 귀
를 떼어 주고 싶었다고 표현을 할 만큼 마음이 아팠음을 의미하였고, 또 다른 연구
참여자는 결혼 후 8년 만에 두 번의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얻은 소중한 자녀가 청각
장애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고통은 컸다고 하였다. 또 청천벽
력 같은 진단 결과,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라고 표현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으며 이걸 아니야, 이걸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야. 라며 도저히 자녀의 청각
장애를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장면을 표현했다. 이러한 결과는
박정미(2011)의 장애자녀의 출생은 상실감, 분노, 충격, 부인 슬픔, 침체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케 한다는 연구와 장애아동의 출생에 따른 장애아동 부모가 겪
는 다양한 감정들은 부인, 분노, 협상, 실망, 수용의 복잡한 심리적 단계를 거치게
된다(Cook, Armbruster, 1983)라고 하였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전향진
등(2014)이 어머니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장애아동의 양육에 쏟는 과정에서 죄책
감과 무기력감 그리고 우울한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고 한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장차 청각장애자녀의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많은 원망과 절망과 갈등을 털어내는 인식의 전환 과정
을 빨리 맞이한 연구 참여자들은 인공와우 수술에 대한 빠른 결정 및 재활치료에 대
한 방향을 모색하여 열심히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2) 아동의 청각장애는 내탓

다음의 이야기들은 자녀가 청각장애로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하였는지를 연구 참여자들의 다음과 같은 경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아이의 청각장애가 모두 제 탓이라 생각하여 저는 그 죄를 조금이라도 치르기 위해 아침저녁으로 쓸고 닦으면서 나의 몸을 혹사 시켰어요, 그래야만 아이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00학교를 다닐 때도 택시를 타고 가야되는 거리였지만 일부러 2시간 이상의 거리를 유모차를 끌고 걸어 다녔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는데 속으로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밤마다 울었어요, (연구 참여자 A)

연구 참여자 A의 남편은 양이 모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열렬한 연애 끝에 결혼을 한 경우라서 청각장애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 참여자들보다는 사전 지식이 있었다. 그런데도 자녀의 청각장애가 자신의 탓이라 인식하고 자신을 혹사하면서 많이 아파했다. 이는 자녀만은 남편과 다른 청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태중에 있을 때 아이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했고 아이의 뇌실이 좀 크다고 말하면서 출산 후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생후에 대학병원에서 MRI를 촬영했다니 뇌출혈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신생아니까 뇌출혈이 아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서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랬던 아이가 들리지 않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하늘이 노랗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모든 문제가 저 때문에 생겼어요, 제가 그때 안 기다리고 다른 방법을 써서 정밀 검사를 했더라면 괜찮았을까? 많이 자책합니다, (연구 참여자 F)

태중에 태아의 성장이 느리고 뇌실이 크다고 했고, 출산 후 정밀 검사에서 뇌출혈이 있다고 했을 때 큰 걱정을 하지 않고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지내왔다는 사실을 크게 후회하였다. 그때 기다리지 않고 바로 큰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크게 인식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다. 그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자녀에 대한 대처가 너무 안일했음을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었다.

결혼 8년 만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을 했어요, 저에게는 얼마나 귀한 아이인줄 몰라요, 너무나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첫 번째 시술에서 쌍둥이였는데 둘 다 실패를 하였고, 두 번째 시술에서도 쌍둥이였는데 하나가 안 되었고 그래도

한 명은 성공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우리 OO입니다, 그런 소중한 아이였는데 임신 8개월경에 아이의 머리에 물이 좀 찼다고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알고는 있으라고 했어요, 병원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깐 저희도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태어나서 신생아 청력검사에서 좌측은 패스를 했는데 우측은 문제가 있긴 한데 만약 마음이 놓이지 않으면 병원에 가보세요라고만 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때 갔어야 했는데 병원에 꼭 가보라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갓난아이를 데리고 고생시킬까봐 안 갔어요, 그래서 아이의 장애를 늦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런 모든 것이 엄마 탓이에요, (연구 참여자 B)

어떤 부모에게 있어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사례였다.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누구나 마음먹는다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잘 묘사하였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자녀가 청각장애를 지니고 태어났을 때 연구 참여자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여러 가지 사정상 빠른 대처를 하지 못했던 자신의 처지를 탓하고, 자녀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아동의 청각장애는 내 탓! 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일은 모두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장애자녀를 출산했다는 것은 연구 참여자 본인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삼연(1999)의 자식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고 잘못이라고 자책하며 깊은 죄책감과 좌절감에 빠져들 수 있다고 보고한 것과 박정미(2011)의 연구에서 장애자녀의 출생은 부모의 기대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상실감, 분노, 충격, 부인, 슬픔, 침체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케 한다는 경우와 같은 맥락이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을 통한 특징은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은 임신이 성공하기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청각장애로 태어난 자녀의 대부분이 임신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6명 중 3명이 난임으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또는 호르몬 주사와 투약 등의 사례가 있었다. 또 1명의 연구 참여자는 자연스럽게 임신이 된 경우였지만 어머니가 건강하지 못했고, 나머지 1명의 연구 참여자도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었으나 태중에서 태아가 잘 자라지 않고 뇌실이 큰 것으로 추정되니 출산 후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의사의 권유가 있었던 경우였고, 또 다른 연구 참여자 1명은 남편이 청각장애가 있었던 경우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청각장애가 된 것은 연구 참여자인 본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접근이 지나치게 장애아동 자신이나 양육자에게만 국한될 때 장애의 원인과 해결책을 개인적 비극이나 과오, 열등에서

찾고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김현옥, 김경호, 박지현, 2009)고 했고, 청각장애자녀의 출생은 이러한 기대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마치 자녀의 죽음을 접한 것처럼 심한 상실감과 슬픔을 가져온다(권세정, 2005)고 했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

자녀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더 많이 괴로워했으며, 어머니로서 청각장애를 인식하지 못해 좀 더 조기에 진단받지 못했다는 자책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부정을 거듭 반복하였지만, 결국은 자녀의 청각장애를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어머니의 장애수용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장애에 대하여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녀의 장애에 대해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결국은 자녀의 청각장애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 주 양육자인 연구 참여자들이 조기에 자녀의 장애를 수용함으로써 가족은 물론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어떻게 장애를 수용했고 자녀의 청각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의 과정을 거쳤는지 다음의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양육 경험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였다.

그 어린 아이를 재워가지고 약을 억지로 먹여서 이런저런 검사를 다 했는데 저희를 부르더라구요, 그래도 희망은 있잖아요, 거기는 서울이니까요, 아!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교수님, 그래도 그때 서울 ○○병원에서는 최고 일인자잖아요, 그런데 첫 마디가 농, 농이래요, 90dB이상 농이래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아~(깊은 한숨) 빨리 수술시키자고 했는데 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그냥 내려오는데 참~(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울 만큼 울먹임). (연구 참여자 D)

서울이라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서울로 올라갔던 상황을 절절하게 묘사를 했다. 하지만 한 가닥의 희망마저 물거품처럼 사라지자 주저앉으며 체념을 하였지만 어머니이기에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자녀를 위해 수술을 생각했다. 이때의 경험이 청각장애를 인정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면서 청능재활의 의지를 불태우는 계기가 되었다.

출산 예정일보다 2주 늦게 태어났는데도 태중에 있을 때 얼마나 못 먹었는지 2.4kg 밖에 안 되는 아이였어요, 신생아 청력검사서 양이 모두 통과가 안 되었어요, 의사는 한 달 정도는 귀에 양수가 차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간과하지 말고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보라고 권유했어요, 00대학병원에서 그 핏덩이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검사를 했는데,, 아이의 양이는 아예 소리가 없는 90dB이상의 농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아무리 발버둥 치며 울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일 빠르게 수술 한다 해도 생후 12개월이 되어야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청기를 끼우고 헤드폰을 씌워서 하루에 100곡씩 노래를 들려주는 일이었어요, 들리지도 않겠지만 혹시나 이걸 자꾸 들으면서 소리에 대한 자극을 받아서 작은 반응이라도 나타날까 기대를 하고 하루 종일 아이와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연구 참여자 A)

남편이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니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했던 의사의 조치는 아주 적절했고, 또 그 말을 간과하지 않고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던 연구 참여자의 결단성이 돋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여자가 향후 자녀의 교육과 재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작점이 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굳은 의지가 자녀의 청각장애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에 대한 열쇠가 되었다.

대학병원 검사를 예약하고 기다리는 동안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진단을 받고 나서 차에서 혼자 음악을 크게 켜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B대학병원, S대학병원, SS병원, Y병원 등 대형병원을 두루 다니며 검사를 하였으나 결과는 다 똑같이 청각장애로 판정을 받았어요,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인공와우 수술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술을 권했어요, 수술에 대한 많은 갈등을 거듭하였지만 인공와우와 보청기 중에서 무엇이 아이를 위한 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향후 획기적인 기술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양이를 다 인공와우 수술을 하기엔 무모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결국 한쪽만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다른 쪽은 보청기를 착용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의 선택이 아이한테 최선의 선택이기를 바라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아이한테 나중에 이야기 하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 E)

많은 청각장애부모들이 자녀의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충격과 절망,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청각장애를 받아들인다. 연구 참여자 E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 E는 신생아 청력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잘 듣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고, 만 5세 때 청각장애 진단을 받고, 만 6세 때 수술을 해서 이제 1년의 기간이 경과 되었다. 아직은 자녀의 청각장애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의 청능재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머니의 장애수용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녀의 청각장애를 알고 난 후 많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원망하다가 이러한 원인은 모두 어머니인 자신의 탓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가족의 따뜻한 위로와 주위의 관심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게 되면서 결국은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는 과정의 단계였다. 이는 김윤희, 김진숙(2014)의 어머니가 자녀의 장애로 인해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더라도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면서 자녀의 장애를 수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장애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어머니와 장애아동 그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를 수용하는 순간 자녀의 수술을 비롯한 재활치료의 방향성을 찾게 되었고, 이제는 어머니인 동시에 재활치료사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 경험이 청각장애자녀의 교육과 재활 곳곳에 녹아들어 그대로 내적동기화로 이루어졌다. 이는 부모의 양육 태도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신뢰감 형성과 함께 자녀의 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권세정, 2005)는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불굴의 도전 정신이라는 긍정적 신념을 가지게 되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정신은 청각장애자녀에게 학교교육, 학업성취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를 아끼지 않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이런 가정의 자녀는 학교에서의 학업성취 동기와 포부를 가지게 된다(권현자, 1988)는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연구 참여자의 이러한 신념이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싶어 하는 모험심 강한 자녀들로 성장해가도록 이끌어 주고 있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로부터 청각장애는 살아가는데 있어서 조금 불편할 뿐이지 진정한 장애는 아니라고 배웠기에 그들은 장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 청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청각장애아동의 교육과 재활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가 자녀의 청각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후 청능훈련을 꾸준히 받을수록 청각장애자녀의 언어능력은 높은 발달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조기에 청각장애의 진단을 받고 조기 언어중재를 받은 아동은 말 인지능력뿐만 아니라 말 산출능력에서도 빠른 발전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였다. 특히 양이 모두 인공와우 수술을 한 청각장애자녀의 언어능력이 한쪽만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농아동보다 우수하였으며, 한쪽은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다른 한쪽은 보청기를 착용한 청각장애 아동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여자의 청각장애자녀들이 현재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각 센터에서 실시한 언어능력 검사 결과와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진단과 수술 그리고 재활치료는 조기에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연구 참여자가 대도시에 살고 있을수록 교육열기가 더 높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수준도 더 높았으며,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학교교육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와의 적극적 대화 시도를 통해 청각장애자녀의 전반적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머니가 청각장애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연구 참여자와 그들의 청각장애자녀가 그룹이나 일정한 모임을 통해 정서적 지원과 정보의 교류 빈도가 높을수록 청각장애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학습이나 미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게 나타났다. 이는 비록 자녀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의 문제로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념과 도전 정신을 심어주어야 함을 시사한다.

2. 청각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인식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란 부모가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는 발달적 특성과 과정을 자녀가 성취하기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영애, 원효중, 2003). 청각장애 아동 양육 경험에서 나타나는 연구 참여자와 자녀의 확고한 의지는 긍정적 신념과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표출되었다. 기대는 인간에게 있어서 강한 힘을 가지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강한 의지를 심어주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자녀는 연구 참여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학습을 동기화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녀의 학습 동기는 연구 참여자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깊은 관련이 있었으며, 이는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서 결과가 그대로 드러났다. 두 번째 의미구조인 청각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인식은 구화교육에 대한 기대,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로 범주화하여 탐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자녀에 대한 이러한 기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 구화교육에 대한 기대

생후 1-2년 안에 인공와우 수술을 한 아동들을 연구 참여자들은 속칭 인공와우 세대라고 불렀다. 이러한 인공와우 세대들은 모두 하나같이 구화교육을 당연시하고 있었다. 비록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농아동들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를 하는 것 자체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였고, 그들이 속한 인공와우 세대를 하나 같이 강하게 변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미 인공와우 기술이 청각장애아동의 얼굴을

바뀌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면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오늘날의 과학 기술이 가져다 준 인공와우에 대해 기념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만족감을 표현하였으며 향후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체가 출시될 것이라고 기대에 차 있었다. 인공와우를 바라보는 그들의 심리와 그들이 속한 세대를 들여다보았다.

OO학교는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너무 좋은데,,, 그런 불편한 아동들을 보면서 우리 OO이가 과연 뭘 보고 배우겠나 싶어서 그냥 일반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동네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을 노크했지요, 처음에는 자기들도 우리 아이 같은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없었으니까 일단 겁을 내더라구요, 그래도 다행히 오전에 3시간만 맡기는 조건으로 시작을 했어요, OO학교를 가지 않은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불행 중 다행스럽게 수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고맙고요, 수어로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연구 참여자 D)

수어교육에 대한 연구 참여자 D의 거부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비단 연구 참여자 D만의 인식은 아니었다.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 대부분 수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인공와우 수술을 한 청각장애 아동의 어머니들에게는 이러한 인식이 더욱 확고한 신념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연구 참여자의 말은 그러한 현상을 더욱 확연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었다.

수어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어는 우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수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말을 배워야 되고 구화를 배워서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합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할 때 수어를 배우려고 수술을 하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구화교육을 위해서 수술을 하였고, 인공와우 수술 후 당연히 예후가 좋았기 때문에 수어는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A)

연구 참여자 A의 내면에는 수어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수어를 입 밖으로 끄집어 내는 사실조차도 단호하게 차단하고 싶어 하였다. 이미 그들에게는 구화만이 가치 있는 언어였으며, 수어는 그들의 언어가 아닌지 오래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말 드물게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재활을 열심히 받고 있는 아동 중에서 수어를 고려하는 아동이 있긴 하지만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수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아주 가끔씩 기기를 빼면 잘 안 들리니까 전쟁이 나거나

배터리가 없거나 고장이라도 나면 말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배울 필요는 있지 않을까하는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계가 없든지거나 귀안에 질병이 생겨서 와우를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해 본적은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A)

연구 참여자들은 수어를 혐오하고 사용 불가능한 언어로 단정을 짓고 오히려 일반 청인들보다 더 싫어했다. 본인들 스스로 모두 청각장애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손사래를 쳤다. 이는 청각장애인을 바라보는 청인들의 인식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으며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청각장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그들에게서 고스란히 전해졌다. 연구 참여자들의 청각장애자녀도 어떠한 경우든 청인아동과 똑같은 대우를 받기 위해 신경 쓰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청각장애와 관련된 인식 전환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를 알 수 있었다.

사실 수어는 아닌 것 같아요, OO학교에서는 고등부에서 말을 사용하는 학생이 단 한명도 없어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수어 쪽은 처음부터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쪽으로는 단 한번도요 처음에 OO학교 다닐 때 유치부, 초등부, 고등부 학생이 다니는데 고등부에서 말을 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고 모두 수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이걸 아는데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 해!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사실 수어는 아닌 것 같다고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려고 내가 여기를 데리고 오는 것이고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려고 인공와우 수술을 하는데 수어를 할 것 같으면 여기를 계속 와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어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인공와우 기계를 착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부담이 이렇게 큰데 수어까지 사용한다면 아마 못 견딜 것 같아요, 인공와우 기계가 보편화 되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수어를 많이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인공와우 기계가 워낙 성능이 뛰어나니까 수어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듣지 못하는 자녀를 출산하였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청인아동과 마찬가지로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구화교육에 대한 인식이 굳은 의지로 표출되었다. 구화교육만이 자녀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신뢰를 통해 오로지 그 길만을 걷고자 하는 연구 참여자의 확고한 의지를 탐색할 수 있었다.

저는 우리 아이에게 수어는 안 가르칠 거예요, 배운 적도 없지만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적도 없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장애인 교육을 받으면서 수어를

배워 와서 집에서 “엄마, 사랑해” 라는 표현을 수어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조차도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쩌면 이게 저의 욕심인 거죠, 그냥 일반아동들 속에서 같이 섞여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수어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한 적도 없어요, 솔직히 구화에도 한계는 있어요, 완벽하게 들리지 않는 소리와 입 모양을 보고 하다보면 놓치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는 인공와우 수술도 받았고, 구화를 잘 하기 때문에 수어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는 자녀가 학교에서 수어를 배워서 사용해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자신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는 의도가 담겨있었다. 학급에서 청각장애아동이 있으면 일반아동들에게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간단한 수어를 가르쳐서 서로 소통하고자 노력한다. 일반아동들이 수어를 배우면서 수치심을 느끼거나 크게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고 신기해서 열심히 배워서 친구와 대화를 해보려고 시도를 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수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그동안 청인들이 그들에게 보였던 청각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시선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가 수어를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농문화에 대해 청각장애아동의 부모들 스스로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수어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었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에게 구화사용은 당연함을 넘어 청인아동과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을 구화사용 능력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는 청각장애를 다문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농인이 사용하는 수어는 마땅히 그들의 고유한 언어이지만 사회 환경으로부터 요구되는 구화 사용능력은 삶에서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은, 2017)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인들의 불편한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였고, 그들은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을 바라볼 때 마치 일반인들이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구화를 유창하게 사용하여 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청인들의 문화 속에서 적응해 나가고 싶어 하는 확실한 의도의 표출이었다. 이는 권순우(2005b)의 연구에서 청각장애 교육의 목표는 청각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듣고 말하는 능력을 신장하여 사회의 주류에 포함시키는 데 있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전반에 내재화되어있는 청각장애인들의 수어문화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이에 대하여 모상근(2015)은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가정에서는 가족이 모두 수어를 사용함으로써 가족 간의 의사소통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갈등

상황이 없었지만, 청인 어머니의 가정에서는 청각장애아동의 수어를 언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화를 가르치면서 갈등요소가 발생하였다는 연구를 통해 최근 무분별하게 인공와우 수술을 선택하려는 부모가 주목해야 할 부분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구화를 사용하던 수어를 사용하던 누가 누구를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그런 힘겨운 논쟁 속에서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하며 감정을 소모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오세철, 서창원(2016)의 연구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구화와 수어의 논쟁은 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는 청각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결정이라고 했던 것과 같다. 이처럼 청각장애아동의 청인부모들은 자녀가 청인아동들처럼 구화교육 위주의 말 잘하는 아동으로 교육시키고 싶어 하며 자녀가 수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은, 2017)고 했던 것과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이 추구하는 구화교육과 인식을 같이 하였다.

구화교육에 대한 기대는 연구 참여자들 모두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아동에게 구화교육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수어사용에 대한 선택은 자신의 자녀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언어로 단정 짓고 단호하게 부정함으로써 구화교육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왜냐하면, 연구 참여자들의 자녀들은 모두 조기에 청각장애 진단을 받고 인공와우 수술 후 청능재활을 현재까지 꾸준히 받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구화교육을 통해 청인아동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주된 이유이기도 했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들은 과거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학업성취 능력이나 독해력, 문장력이 청인아동에 비해 전반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기에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조기에 청능훈련과 언어재활훈련을 꾸준히 받고 있는 인공와우 세대 아동에 대한 점검 및 재평가가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2)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

오늘날 가정이 지닌 교육 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학교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지식 습득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적·심리적·인지적 성장 발달을 통한 정서적 대처 능력 배양, 진로 탐색, 교사와의 인격적 대인관계 형성 등 모든 삶과 그 방향을 결정짓는 일생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장소이며 기관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권순우, 김병하, 2004). 위의 인용문은 학교교육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가정은 이와 반대로 오히려 학교의 기능은 과거에 안주하고 있었고, 청각장애아동을 둔 가정에서 먼저 변화를 받아들이고자 애쓰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시대는 바야흐로 21세기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는

데 우리의 교육은 아직도 과거에 발이 묶여 있다고 절규하였다. 다음의 사례들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교육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학교가 학교의 역할을 교사가 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학년이 새로 올라갈 때마다 담임교사가 바뀌니까 그때마다 우리 아이의 현재 청력상태와 인공와우 수술에 대한 것과 청각장애의 기본 같은 내용을 프린트해서 가지고 갑니다,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상담을 하면 담임교사들이 겁을 많이 냅니다, 인공와우 기계가 뭔지도 모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청각장애 아이고~~ 이거 학교생활 잘 되겠나?" 하면서 노골적인 표현을 하는 교사도 있어요, 특수학급 교사가 있지만, 학급 담임선생님은 걱정을 하는 거지요, 요즘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궁금하면 인터넷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불뚱만 튀지 않길만 바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달려가야 해요, 학교 선생님 중 누구 한사람이라도 인공와우를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행히 회사가 근처에 있어서 회사에는 밖에 좀 나갔다 온다고 거짓말하고 빨리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제일 힘듭니다, (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D의 자녀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9년 정도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하고 있다. 기계가 오래되어 수시로 잔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연구 참여자가 일하다 말고 학교로 호출되어 가야만 했다. 인공와우 기기를 다룰 줄 아는 교사가 한 명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처음부터 겁을 내고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에 대한 조금 특별한 기대가 있는데 기계적인 부분입니다, FM수신기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혹시 기계에서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아이에게 임시방편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처방해줄 수 있는 것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 참여자 A)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 보육교사, 영양사, 방과 후 교사, 전문직 프리랜서, 회사원 등의 직업군이 다양했다. 하지만 자녀의 청각장애 진단으로 인공와우를 착용한 뒤부터는 대부분 직장을 포기한 상태였다. 이는 자녀가 인공와우 착용으로 인하여 작은 고장이라도 나면 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자녀의 주위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었다. 대부분 기계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고, 고가의 기계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은 혹시 유치원

에서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 참여자 A도 이제는 학교 차원에서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 묘사하였다.

우리 아이 1학년 담임선생님이 주임 선생님인데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해 미니 마이크를 선생님의 옷가에 좀 끼워주실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걸 끼게 되면 마이크 처럼 되어 있어서 인공와우를 한 아동들에게 잘 들리거든요, 아이가 입학하고 나서 3월 초에 제가 그걸 들고 가서 선생님께 보여드리면서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어머니, 저는 기계 못합니다," 하고 단번에 거절하시더군요, 저는 무슨 죄를 지은 사람처럼 슬쩍 기계를 도로 집어넣었어요, 정색을 하시면서 자기는 누구랑 수업을 해도 심지어 농부와 수업을 해도 자기 목소리를 다 잘 들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3월 초에 학교 입학하자마자 벌써 거기서부터 거대한 벽에 딱 부딪혔습니다. (연구 참여자 C)

청각장애를 바라보는 교사의 관점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담임교사라면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수업에서 듣기의 수월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리 배치나 소리의 크기 조절 등을 고려하여 청인아동과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연구 참여자 C는 주장했다. 그러나 그러한 바람은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방적 의견이 되어 사라져버리기 일쑤였다. 청각장애아동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계의 착용을 권하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꺼내서는 안 될 말을 한 죄인이 되는 학교 현실에서 교사의 인식전환에 대한 길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사례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 대부분이 학교에 바라는 기대와 부합될 것이다. 다음과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교육에 거는 기대는 소박하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절실했던 경험을 들어보았다.

선생님이 청각장애아동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반의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각장애아동들이 조금 느리고 잘 못 하더라도 기회를 주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학교교육에 대해 바라는 마음입니다. (연구 참여자 F)

교실에서 자리 배치할 때 복도 쪽과 운동장 쪽은 조금만 피해서 앉혀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다면 중앙의 맨 앞과 바로 뒤에 앉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소음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반아동들이 짝꿍을 바꿀 때 우리 아이도 한 번씩 짝꿍을 바꿔주셔서 여러 아동들과 사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청각장애아동이라서 배제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연구 참여자 A)

우리 아이가 청각장애인이지만 뭐든지 관대하게 대하면서 과잉보호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냥 일반아동들하고 똑같이 대해주시고 교육시켜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아동들과 다르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똑같이 키우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 E)

학교교실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음입니다, 시끄러우니까 잘 들리지 않을 것이고 요즘에는 토론이나 발표를 많이 하는 수업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걱정입니다, 시끄러운 상황에서 말소리를 잘 듣고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교실 환경이 최적의 환경은 아니더라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신경써주시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 참여자 F)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는 연구 참여자들이 대부분 불만을 많이 표출하였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시대는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학교교육은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성토했고 있었다. 학교교육에서 가장 큰 불만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불만이나 학습권 신장에 대한 기대, 청각장애자녀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담임교사의 자질문제를 공통적으로 많이 거론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 담임교사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았던 교사들이었으며, 그들은 청각장애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담임을 맡거나 맡은 후에도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었다. 연구 참여자는 “우리 교사들은 밥까지 떠먹여 드려야 하는구나.” 라고 했을 정도로 교사로서의 역할이나 태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였다. 심지어 어떤 담임교사는 청각장애자녀를 학습활동에 참여시키지 않고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었다는 연구 참여자의 지적도 있었다. 이는 권순우(2005a)의 학교 현장에서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았거나 긍정적인 경험이 많은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도나 생활 태도가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고 했던 것과 비교된다. 최상배(2012)의 연구에서 일반교사는 청각장애학생을 사회적 통합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나 교육적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인식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사의 책무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넘쳐나는 정보화 시대에 ‘청각장애’ 나 ‘인공와우’ 라는 한 번의 검색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만 특수교사가 아닌 일반교사라는 이유로 청각장애아동을 홀대하는 담임교사의 자질과 인성문제를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나이든 교사들이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면서 주로 나이든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이를 심각한 갈등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사들은 학급에 장애아동이 있다는 자체가 귀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교사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애아동이 있는 반의 담임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는 젊은 교사의 배치가 급선무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젊은 교사들은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력과 그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관료적 체제에 안주하지 않고, 21세기가 지향하는 교육에 대한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청각장애아동의 이러한 학교교육에 대한 고충을 통해 교사는 자신들의 책무성을 높이고 자기 연찬의 방법으로 다양한 연수를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활동 등 질적인 자질 향상과 더불어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청각장애자녀의 인공와우 기기나 코일에 크고 작은 이상이 생겼을 때 특수교사나 보건교사가 있지만, 인공와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고 또 기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등 아예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한 일이 발생 될 때마다 연구 참여자가 직접 뛰어가서 손을 봐주어야 하는 현실의 답답함을 털어놓았으며, 이러한 일들이 연구 참여자들의 직업 생활을 포기하게 만든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했음을 밝혔다. 거기에 학교운영과 학교시스템도 과거에 얽매어 있음을 지적하였고, 청각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장애아동을 위한 환경개선도 절실함을 토로하였다. 이는 권순우, 김병하(2004)의 연구에서 학교는 이제 더 이상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 습득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교사와의 인격적 대인관계 생성 등 모든 삶과 그 방향을 결정짓는 일생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장소이며 기관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고 했던 것과 비교된다.

한편 학교교육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던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그만큼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도 많았으며, 이는 자녀의 교육에도 상당히 기대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났다(전세남, 1989)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학교의 개별화 회의에도 참석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고, 또 열정을 가지고 청각장애자녀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였다. 이는 과거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장애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욕구가 높아

졌다(고일영, 2009)는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학교교육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자녀들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그런 영향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가 그만큼 잘 되어 있었고, 학업성취도가 다른 자녀들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경우는 아동의 교육적 성취를 그들의 가정을 비롯한 주위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지만, 특히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구영주, 1997)고 했던 연구 결과와 같았다. 이는 또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동과 성적이 부진한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정환경을 조사한 결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동의 부모는 성적이 부진한 아동의 부모보다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교육적 기대가 낮은 부모의 자녀들은 교육 성취도가 낮았다(최상배, 2012)고 한 결과와도 일맥상통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초등학교 청각장애아동의 어머니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어머니의 양육 경험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지를 현상학적 분석을 통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이 청각장애아동의 교육과 재활에는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대한 인식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녀를 임신하여 출산을 하고, 양육했던 경험을 고통의 강도, 아동의 청각장애는 내 탓, 어머니의 장애 수용의 과정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양육 경험의 인식 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청각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고 양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나가는 순서였다. 고통의 강도에서 가족의 애타는 기다림과 축복 속에서 태어난 자녀가 청각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고통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으며, 청각장애자녀의 탄생은 가족에게 위기였음을 공통적으로 인식하였다. 아동의 장애는 내 탓에서는 자녀의 장애가 어머니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면서 자책하였으나, 가족의 따뜻한 격려를 통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존재감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어머니의 장애수용에서는 자녀의 올바른 양육이라는 목표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이는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 내·외적 요인들에 대한 인식들이 연구 참여자들의 양육 행위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이자 출발점이 되었다.

둘째, 청각장애자녀의 양육 경험을 토대로 자신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인식을 의미구조로 하여 구화교육,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로 범주화하여 의미를 탐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청각장애자녀를 위한 다양한 양육 경험을 통해 자신이 실행했던 방법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함께 자기주도적인 교육관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구화교육에 대한 기대에서는 청각장애자녀를 위해 인공와우 수술을 결정할 당시 이미 구화교육의 당위성을 확고하게 인지하였고, 유창한 구화의 사용을 위해서 청능재활에 심혈을 기울였음이 나타났다.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도 학교교육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머니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의 의미 분석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양육 경험의 본질은 불굴의 도전 정신이라는 개념으로 규명되었으며, 이러한 긍정적 신념과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이 자녀에 대한 다양한 기대감으로 표출되었고, 이는 청각장애자녀에게 내적동기화가 되어 긍정적인 결과로 기대에 부응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의 의미 분석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지닌 양육 태도와 교육관이 자녀의 성장기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제한적이었던 연구과제의 극복을 위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둔 연구 참여자로 한정을 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청각장애자녀를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확대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양육 경험에 따라 청각장애자녀의 가치관이 정립되기 때문에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양육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견지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둔 연구 참여자 6명을 대상으로 H, G시의 연구 참여자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청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이 다소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가능한 다양한 지역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좀 더 심화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도홍 (2014). **언어기관의 해부와 생리**. 서울: 학지사.
- 고은 (2017). **청각장애아교육**. 서울: 학지사.
- 고일영 (2009). **장애아동 어머니의 장애수용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구영주 (1997). 청각장애학생의 교육배치유형 및 부모의 기대수준이 독해력과 씬하기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권순우 (2005a). 청각장애 학교교육과정 재구조화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권순우 (2005b). 청각장애 대학생의 경험에 기초한 독해력 및 문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 탐색. **언어치료연구**, 14(1), 1-21.
- 권순우, 권순복, 김영익, 유정은, 팽재숙, 허세영 (2018). **청각장애학생교육**. 서울: 창지사.
- 권순우, 김병하 (2004). 청각장애학생의 과정별 학교교육 상황에 대한 종단적 사례연구. **언어치료연구**, 13(3), 93-121.
- 권순우, 김병하, 김남진 (2003). 읽기 지도 중 신문활용 교육을 통한 청각장애학생들의 독해력 향상. **난청과 언어장애**, 26(1), 99-113.
- 권세정 (2005). 청각장애자녀와 건청형제자매의 양육 경험과 학교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 비교.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권현자 (198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민영, 성정경 (2015). 청각장애부모의 건청인자녀 양육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말레이시아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0(1), 129-154.
- 김민정 (2012). 아버지 역할기능에 대한 양육 신념 및 자녀기대감의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149-166.
- 김영태, 이윤경 (2000). 중고도 청각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발화길이 비교. **특수교육학 연구**, 35(3), 1-15.
- 김윤희, 김진숙 (2014).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장애수용 과정. **상담학연구**, 15(5), 1911-1935.
- 김태경, 이지윤, 강은희 (2017). 인공와우이식아동과 건청아동 간의 암묵적 학습능력과 읽기폭 과제 수행 비교. **특수아동교육연구**, 19(4), 51-68.
- 김향식 (2009).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김현옥, 김경호, 박지현 (2009). 장애 아동 양육자의 장애수용과 희망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7(12), 35-72.
- 김현주 (2014).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장애아동 학대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18(1), 113-134.
- 김호연, 강창욱 (2011). 화성시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 및 부모교육 실태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4), 335-359.
- 모상근 (2015). 청각장애자녀를 둔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의 양육 경험 비교. **신앙과 학문**, 21(1), 145-188.
- 박은희 (2003). 어머니의 자녀기대감 척도의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정미 (2011). 종교생활이 장애인가족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신경립, 장연집, 김영경, 이금재, 최영민, 김혜영, 김옥현, 김영혜 (2004). **질적 연구 방법: 포커스 그룹**. 서울: 현문사.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안수영 (2015).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장애수용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1), 219-238.
- 안윤정, 현진희 (2014). 아스퍼거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6(1), 113-138.
- 오세철, 서창원 (2016). 청각장애 관련 문학작품에 나타난 의사소통 문제상황 분석-의사소통 방법 정교화의 필요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3), 1-34.
- 오인혜, 정은희 (2011). 청각장애인 가족 유형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경험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3(3), 409-435.
- 오혜정 (2017). 청각장애 및 비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과 비장애자녀를 위한 가족 지원 요구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8(4), 239-262.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6).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이삼연 (1999). 장애아모의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8, 180-205.
- 이승미, 김희진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양육 효능감 및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 **대한가정협회**, 43(1), 17-33.
- 이영미 (2013). 학령기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읽기 이해력과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5(3), 67-79.
- 이지운, 이조영, 이옥분 (2015). 청각장애 아동과 건청 아동의 숫자따라말하기와 읽기폭과제 수행력 비교. **언어치료연구**, 24(4), 401-411.
- 장유리 (2015).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부모의 건청자녀 양육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전세남 (1989).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시험불안 및 학업성취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향진, 오명화, 김정자 (2014).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논문집**, 2014(11), 207-210.
- 정세영, 김자경 (2015). 자폐스펙트럼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 **특수아동교육연구**, 17(3), 179-202.
- 정승희, 최성규 (2011). 청각장애유아 가족의 양육 경험과 가족기능에 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3(4), 229-253.
- 정현주, 김성수 (2013).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의사소통이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재활복지**, 17(2), 69-95.
- 최상배 (2012).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 실태와 개선방안-교육 수어통역을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14(3), 55-77.
- Bogden, R. C., & Biklen, S. K. (198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Boston: Allyn and Bacon, Inc.
- Cook, R. E., & Armbruster, V. E. (1983). *Adapting early Childhood Curricula: Suggestions for meeting special needs*. St. Louis, MO: C. V Mosby & Co.
- Patton, M.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The Rearing Experiences and Awareness about to Education of Mothers of Hearing Impaired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Kim, Tae-Sook

Daegu University

Kwon, Soon-Woo

Daeg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what is the intrinsic meaning of the parenting experience and the expectation about the hearing impairment children through in-depth interview with six mothers who have elementary children wearing a cochlear implants on a basis of phenomenological analysis. Furthermore, We tried to find out what kind of implication would be provided b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 terms of the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hearing impairment children.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research. First, We categorized the mothers' recognition about the parenting experience into three phases which are the amount of pain who underwent during the whole process of expecting and giving a birth of a hearing impairment child, blaming themselves for the disabilities of their child, embracing the fact. These processes led to make them have indomitable and challenging spirits and form a cycle as well that eventually produces the positive rearing attitude for their children. Second, We categorized the process of expectation that mothers have about their hearing impairment children into two phases based on positive rearing experience of the participants which are demutization, school education.

Key Words : Cochlear Implant, Hearing Impairment, Rearing Experience

논문 접수: 2019. 05. 09 심사 시작: 2019. 05. 10 게재 확정: 2019. 06. 14